

고구려 백라관(白羅冠)의 형태 비정(比定)*

정 완 진**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문헌기록과 고구려 고분벽화 및 중국 벽화의 검토를 통해 고구려 백라관(白羅冠)의 형태 규명을 시도하였다. 비록 백라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를 찾아내지는 못하였지만, 문헌사료의 분석을 통해 백라관은 중국의 무관(武冠) 계열의 관모(冠帽)가 아니라 청라관(靑羅冠)·비라관(緋羅冠)·소골(蘇骨)과 유사한 형태 특성을 지닌 변형(變形) 관모임을 유추해 낼 수 있었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의 분석을 통해 소골은 높고 넓은 모륜(帽輪)을 갖춘 변형 관모이며 소골의 소재로 언급된 자라(紫羅)는 모륜의 소재임을 밝혔다. 나아가 중국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사신의 관모 분석을 통해 청라관과 비라관은 각각 청색 모륜과 비색 모륜을 갖추었으며, 소골보다 모륜은 높고 모체(帽體)는 작아서 모륜이 관모의 중심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청라관·비라관의 형태를 통해 백라관의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백라관은 백라(白羅)로 제작된 높고 넓은 모륜, 모륜 속에 거의 가려진 낮은 모체, 귀를 통과시킬 수 있는 끈으로 구성된 작은 변형 관모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백라관이 백라를 사용하고 금으로 장식한 반면, 청라관과 비라관은 청라·비라를 사용하고 금과 은을 섞어서 장식함으로써 서로 구별되었으며, 조우 장식의 형태와 소재에 있어 청라관·비라관과 차등을 두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료의 한계상 논리의 비약이 많았으며 백라관의 정확한 형태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백라관이 역사적 사실에 보다 가깝게 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에 연구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제어] 백라관, 무관, 청라관, 비라관, 소골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고구려 변형 관모의 형태 분류 및 변천 |
| II. 백라관의 문헌적 검토 | V. 7세기 라관(羅冠)의 형태 비정 |
| III. 소골(蘇骨)의 형태 | VI. 맺음말 |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서울대학교박물관 객원연구원 / jwanjin@hanmail.net

I. 머리말

고구려에서 가장 다양하게 분화된 복식은 ‘관모(冠帽)’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와 문헌기록을 참조하면 고구려인들은 성별, 신분, 역할, 지역, 시기에 따라 다양한 관모를 착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료의 소략함으로 인해 문헌상의 관모 명칭과 벽화상의 관모를 연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백라관(白羅冠)’이다.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에 의하면 고구려의 왕은 백라(白羅)로 만든 관(冠)을 썼다고 하는데,¹⁾ 소재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형태에 관한 설명이 보이지 않아 백라관의 형태를 짐작하기 어렵다. 백라관에 대한 논의는 안악3호분 피장자 논쟁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데,²⁾ 안악3호분의 왕릉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백색의 얇고 투명한 견직물이라는 ‘백라’의 소재 특성에 착안해 안악3호분 묘주가 착용한 백색의 망상대관(網狀大冠)을 백라관으로 파악하고 있다.³⁾ 그러나 중국계 망명인인 동수묘(冬壽墓)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안악3호분 묘주의 관모가 동시기 중국 고고학 자료에서 확인되는 무관(武冠)과 형태 유사성을 갖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계 무관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⁴⁾ 이처럼 백라관의 형태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합일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자는 무관설(武冠說)을 취하는 입장으로 선행연구에서 안악3호분 묘주의 관모가 무관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으나 백라관의 구체적인 형태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⁵⁾ 그런데 백라관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무관설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백라관이 무관 형태가 아니라는 소극적 입장에서 나아가 백라관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백라관의 형태에 관한 단서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와 중국 벽화를

1)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衣裳服飾唯王五綵 以白羅爲冠 白皮小帶 其冠及帶咸以金飾”; 『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王服五采 以白羅製冠 革帶皆金釧”(이들 기록에는 “백라로 관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백라관’으로 약칭하고자 한다.)

2) 안악3호분의 피장자 논쟁에 대한 연구사는 孔錫龜, 「안악 3호분의 주인공과 고구려」, 『白山學報』 78, 백산학회, 2007, 62~66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3) 백라관설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전주농, 주영현, 천석근, 박진욱, 손영중, 박선희 등이 있다.(전주농, 「안악 《하무덤(3호분)》에 대하여-그 발견 1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유산』 1959-5,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9, 31~32쪽; 朱榮憲, 「주요 고구려벽화무덤의 주인공문제에 대하여」, 『高句麗古墳壁畫』, 東京: 朝鮮畫報社, 1986, 권말12쪽; 천석근, 「안악제3호무덤벽화의 복식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6-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6, 26쪽; 박진욱, 「안악3호무덤의 주인공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90, 3쪽; 손영중, 「고구려벽화무덤의 문서명과 피장자」, 『高句麗研究』 4, 고구려연구회, 1997, 290쪽; 박선희, 『한국 고대 복식-그 원형과 정체-』, 지식산업사, 2002, 252~258쪽.)

4) 무관설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東潮, 양경애, 공석구, 정완진, 이경희 등이 있다.(東潮, 『高句麗考古學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97, 439~442쪽; 梁慶愛, 「三國時代 支配階層 服飾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50~55쪽; 孔錫龜, 「安岳3號墳 主人公의 冠帽에 대하여」, 『高句麗研究』 5, 고구려연구회, 1998, 189~191쪽; 정완진, 「袁台子墓 벽화 주인공 복식에 관한 연구-고구려 복식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복식』 51:5, 한국복식학회, 2001, 95~111쪽; 이경희·서영대·조우현, 「고구려와 중국의 武冠 비교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1, 한국의상디자인학회, 2007, 51~69쪽; 이경희, 「평양지역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묘주복식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56, 한국고대사학회, 2009, 253~299쪽.)

5) 정완진, 앞의 논문, 95~111쪽.

분석하여 백라관의 형태를 비정(比定)해 보고자 한다.

II. 백라관의 문헌적 검토

백라관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백라관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인 『구당서』·『신당서』의 기사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상복식은 왕만이 오채색을 사용한다. 백라(白羅)로 만든 관을 쓰고 백색 가죽으로 만든 작은 허리띠를 하는데 관과 허리띠는 모두 금으로 장식한다. 관등이 높은 사람은 청라(靑羅)로 만든 관을 쓰고 그 다음은 비라(緋羅)로 만든 관을 쓰는데, 조우(鳥羽) 2개를 꽂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다. 저고리는 소매통이 좁고 바지는 통이 넓으며 백색 가죽 허리띠와 황색 가죽신을 착용한다. 국인(國人)은 갈(褐)을 입고 변(弁)을 쓴다.⁶⁾

왕복은 오채색이고 백라로 관을 만들며 역대에는 모두 금테[金釧]를 두른다. 대신은 청라관(靑羅冠)을 쓰고 그 다음은 강라관(絳羅冠)을 쓰는데, 조우 2개를 꽂고 금과 은을 섞어 장식한다. 저고리는 소매통이 좁고 바지는 통이 넓으며 백색 가죽 허리띠와 황색 가죽신을 착용한다. 서인(庶人)은 갈(褐)을 입고 변(弁)을 쓴다.⁷⁾

위의 기사는 고구려왕이 백라로 만들고 금으로 장식한 관을 쓴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관의 소재와 장식만 언급했을 뿐, 형태 정보가 빠져 있어 백라관의 형태를 짐작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백라관의 형태를 비정하고자 하는 초기 연구자들은 관의 소재를 근거삼아 안악3호분 묘주의 투명한 덧관을 백라관으로 비정하였다(〈그림 1〉).⁸⁾ 그러나 안악3호분 묘주의 관모를 무관으로 보는 학설이 대두되면서 백라관설(白羅冠說)이 힘을 잃어 가자, 박선희는 소재 뿐만 아니라 장식 특성, 무관과의 차별점 등을 내세우며 ‘백라관설’을 강력히 주장하였다.⁹⁾ 박선희는 『신당서』 기사에 보이는 ‘금구(金鉤)’를 금테 혹은 금장식 단추로 해석하면서, 이 기록이 안악3호분 묘주 덧관의 금색 테두리 및 관끈 하단의 단추 장식과 정확히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¹⁰⁾ 그러나 관모 하단의 얇은 테두리

6) 『舊唐書』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衣裳服飾唯王五綵 以白羅爲冠 白皮小帶 其冠及帶咸以金飾 官之貴者則靑羅爲冠 次以緋羅 插二鳥羽及金銀爲飾 衫筒袖袴大口白韋帶黃韋履 國人衣褐戴弁”

7) 『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王服五采 以白羅製冠 革帶皆金釧 大臣靑羅冠 次絳羅 珥兩鳥羽 **金銀雜釧** 衫筒袖袴大口白韋帶黃革履 庶人衣褐戴弁”. 여기서 “金銀雜釧”은 “金銀雜飾”의 誤記로 판단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이 구절 앞에 “革帶皆金釧”라는 구절이 있어 기록자가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舊唐書』, 『周書』, 『隋書』, 『北史』에서 고구려의 羅冠을 설명하면서 모두 “金銀爲飾”이나 “飾以金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교감(校勘)하였다.

8) 각주 3) 참조.

9) 박선희, 앞의 책, 2002, 252~258쪽.

를 금테라 확신하기 어렵고, 관끈의 끝장식 또한 금단 추보다는 술장식에 가까워 보인다. 무엇보다 『신당서』에서 말하는 금구(金鉤)의 대상은 현대에 한정되므로 금구와 백라관을 연결한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보다는 『구당서』의 “관과 허리띠는 모두 금으로 장식한다.”는 기사에 의거하여 백라관에 금장식을 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박선희는 또한 안악3호분 묘주의 관모가 직물의 섬세도, 덧관과 속관의 연결 모습, 수(收)의 유무(有無), 끈의 길이 등에서 중국의 무관과 구별된다고 보고 있다.¹¹⁾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를 일부 인정한다 할지라도 관모의 전체적인 형태가 무관과 유사한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3세기~7세기까지 끊임없이 관모 제도를 변화시켜온 고구려의 상황을 고려할 때, 7세기경의 백라관을 4세기 중엽의 안악3호분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¹²⁾ 따라서 백라관의 형태에 관한 정보는 『구당서』·『신당서』 기사에서 어떻게든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림 1〉 안악3호분 묘주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도판35)

여기서 ‘관인(官人) 역시 왕과 마찬가지로 라(羅)로 만든 관을 쓴다’는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당서』·『신당서』는 고구려의 상위 관인은 청라관(靑羅冠), 하위 관인은 비라관(緋羅冠)이나 강라관(絳羅冠)을 쓴다고 전하고 있다. 하위 관인의 관모 서술에 ‘비라관’과 ‘강라관’이라는 두 가지 표현이 보이는데, 비(緋)와 강(絳)은 모두 대홍계(大紅系) 홍색으로¹³⁾ 『구당서』에 “강공복(絳公服)을 비색(緋色) 비단으로 만든다”는 기록¹⁴⁾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와 ‘강’이 통용되는 예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라관과 강라관은 동일한 실체로 이해하고자 하며, 이하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비라관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기록에 보이는 7세기 고구려의 관모제도는 왕은 백라관, 상위 관인은 청라관, 하위 관인은 비라관을 쓰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왕과 관인의 관모 서술에 있어 ‘백-청-비’라는 색채상의 차이와, 백라관은 금으로 장식하고 청라관과 비라관은 금과 은을 섞어 장식한다는 장식상의 차이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색채와 장식의 차이만을 드러낸 서술방식으로 볼 때, 형태면에서는 백라관, 청라관, 비라관이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⁵⁾ 따라서 백라관의 형태는 청라관과 비라관의

10) 박선희, 앞의 책, 252~253쪽.

11) 박선희, 앞의 책, 255~258쪽.

12) 중국 正史에 수록된 고구려 관모기사는 내용연대에 따라 3세기(『三國志』), 5세기(『魏書』·『南齊書』), 6세기(『周書』·『隋書』·『北史』), 7세기(『舊唐書』·『新唐書』)의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기별 차이를 통해 3세기~7세기에 걸쳐 고구려의 관모 제도가 끊임없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백라관에 관한 기사는 『구당서』와 『신당서』에서만 확인되므로 7세기경의 사정을 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3) 周汛·高春明,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6, 555~556쪽.

14) 『舊唐書』卷45, 志25 輿服, “諸流外官行署 三品以上 黑介幘 絳公服用緋為之 制同絳紗單衣”

형태를 통해 일정 부분 유추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7세기 무렵의 제도인 청라관과 비라관을 4세기 중반~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찾아볼 수 없음은 백라관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6세기의 사정을 전하는 문헌기록에서 청라관, 비라관의 전신(前身)으로 보이는 ‘소골(蘇骨)’이라는 관모가 눈에 띈다. 다음 장에서는 소골과 청라관·비라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소골의 형태 추정을 통해 7세기 라관(羅冠)-청라관·비라관·백라관-의 형태를 추정할만한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Ⅲ. 소골(蘇骨)의 형태

1. 소골과 청라관·비라관의 관련성

소골과 관련하여 『주서』·『수서』·『북사』의 기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장부(丈夫)는 소매통이 좁은 저고리, 통이 넓은 바지, 백색 가죽 허리띠, 황색 가죽신을 착용한다. 그 관은 골소(骨蘇)라고 하는데 대부분 자라(紫羅)로 만들고 금과 은을 섞어 장식한다. 관 품이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조우(鳥羽) 2개를 꽂아 차이를 나타낸다.¹⁶⁾

사람들은 모두 피관(皮冠)을 쓰고 사인(使人)은 조우(鳥羽)를 더 꽂는다. 귀한 사람의 관에는 자라(紫羅)를 사용하고 금은으로 장식한다. 소매통이 넓은 저고리, 통이 넓은 바지, 소색(素色) 가죽 허리띠, 황색 가죽신을 착용한다.¹⁷⁾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절풍(折風)을 쓰는데 모양이 변(弁)과 같다. 사인(士人)은 조우(鳥羽) 2개를 더 꽂는다. 귀한 사람의 관은 소골(蘇骨)이라 하는데 대부분 자라(紫羅)로 만들고 금은으로 장식한다. 소매통이 넓은 저고리, 통이 넓은 바지, 소색(素色) 가죽 허리띠, 황색 가죽신을 착용한다.¹⁸⁾

15) 주영현은 안악3호분 묘주는 백라관을, 덕흥리고분의 묘주는 청라관을 쓴 것으로 파악하였다. 기본 형태가 유사한 두 관모를 색채 차이에 따라 백라관과 청라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영현 또한 백라관과 청라관의 형태 유사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비라관의 사례로 들고 있는 덕화리1호분 묘주의 관모는 붉은색의 변형 관모로 추정되고 있어서 비라관을 비정하는데 있어서는 형태보다는 색채에 근거한 인상을 주고 있다.(朱榮憲, 앞의 논문, 권말7쪽, 12쪽.) 이 밖에 이경희도 왕과 대신의 관모가 색으로 구분되고 있어서 관모의 형태 자체는 같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이경희, 앞의 논문, 2009, 286~287쪽.)

16) 『周書』 卷49, 列傳41 異域上 高麗, “丈夫衣同袖衫大口袴白韋帶黃革履 其冠曰骨蘇 多以紫羅爲之 雜以金銀爲飾 其有官品者 又插二鳥羽於其上 以顯異之”. 여기서 “同袖衫”은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을 참조할 때 “筒袖衫” 혹은 “箭袖衫”의 오기(誤記)로 판단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筒袖’와 ‘箭袖’는 대통[箭]처럼 좁고 직선적인 소매를 지칭하는 용어이다.(周汛·高春明, 앞의 책, 1996, 252쪽 참조)

17)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高麗, “人皆皮冠 使人加插鳥羽 貴者冠用紫羅 飾以金銀 服大袖衫大口袴素皮帶黃革履”

6세기경의 사정을 보여주는 위의 기사들은 세부적인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라(紫羅)로 만든 관의 존재를 전하고 있다. 자라관(紫羅冠)은 ‘골소(骨蘇)’ 혹은 ‘소골(蘇骨)’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어원적(語源的)으로 볼 때 ‘소골’ 쪽이 관모 형태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명칭으로 판단된다.¹⁹⁾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소골의 착용신분층에 관해서는 『주서』 기사를 신빙하기 어려우므로²⁰⁾ 『수서』·『북사』에 의거하기로 한다. 『수서』와 『북사』에는 다양한 관모와 착용신분층이 등장한다. 두 기사를 비교하면 ‘피관(皮冠)=절풍(折風)’, ‘사인(使人)=사인(士人)’, ‘자라로 만든 관=소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人)은 사인(使人, 士人)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등이 없는 일반인을 의미하고, 사인(使人, 士人)은 관인(官人)을 의미하며, 귀자(貴者)는 관등 소지자 가운데 상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²¹⁾ 이렇게 볼 때 비관인(非官人)은 절풍을 쓰고, 하위 관인은 조우 장식을 한 절풍을 쓰며, 상위 관인은 소골을 쓴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이제 소골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자. 소골은 자라로 만들고 금으로 장식하며 조우 2개를 꽂는 관모이다.²²⁾ 그런데 이러한 특성은 청라 혹은 비라로 만들고 금으로 장식하며 조우 2개를 꽂는다는 청라관·비라관과 색채 차이만 보일 뿐이다. 여기서 6세기의 소골이 7세기 청라관·비라관의 전신(前身)이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비관인은 절풍, 하위 관인은 조우 장식을 한 절풍, 상위 관인은 소골을 쓰는 6세기의 관모 제도가, 7세기에는 비관인은 절풍²³⁾, 하위 관인은 비라관, 상위 관인은 청라관을 쓰는 제도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²⁴⁾

18) 『北史』卷94, 列傳82 高麗, “人皆頭著折風 形如弁 士人加插二鳥羽 貴者 其冠曰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 服大袖衫大口袴素皮帶黃革履”

19) 『주서』는 도중에 원본 일부가 사라져서 『북사』로부터 없어진 부분을 보철(補綴)했다(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編, 『고구려사 연구Ⅱ』史料篇,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1127쪽.)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보철의 과정에서 ‘소골’을 ‘골소’로 잘못 표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20) 『주서』에서는 장부(丈夫) 즉, 일반 남자는 ‘골소’를 쓰고 관품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조우 장식을 하여 차이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런데 골소의 소재가 자라(紫羅)라는 견직물이고 여기에 금은 장식까지 부가된 것을 볼 때 골소를 일반인까지 통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1) 人, 庶人, 國人으로 표현되는 6~7세기 고구려의 절풍 착용자를 비관인으로 파악하지 않고 지배신분층 내에서의 최하위층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251~252쪽; 김영심, 「6~7세기 삼국의 관료제 운영과 신분제」, 『한국고대사연구』 54, 2009, 한국고대사학회, 97~110쪽.) 그러나 『구당서』·『신당서』에 따르면 이들은 갈(褐)로 만든 의복을 입는다고 하는데, ‘갈’은 거친 털로 짠 모직품으로 주로 갈개에 사용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의복용 소재로도 사용했다고 한다.(周汎·高春明, 앞의 책, 179쪽), 또한 고분벽화에서 절풍 착용자는 주로 피지배신분층으로 판단된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절풍 착용자를 일반 백성으로 파악해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다만, 고구려의 모든 백성이 절풍을 썼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풍의 착용에 신분상의 제약은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22) 『수서』·『북사』에 따르면 관인의 관모에는 조우장식을 한다고 되어 있고, 소골은 상위 관인이 쓰는 관모라고 했으므로 소골에는 항상 조우 장식이 되어 있을 것이다.

23) 『구당서』·『신당서』에서는 7세기 비관인의 관모로 변(弁)을 들고 있다. 『삼국지』, 『위서』, 『북사』 등의 고구려 관모기사를 참조하면 여기서의 변은 절풍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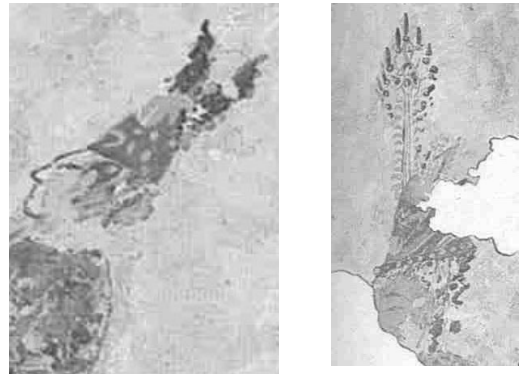
24) 임기환과 김영심은 6세기에 소골을 쓰던 고위 관인이 7세기에는 좀더 세분되어 청라관과 비라관을 착용하는 부류로 구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임기환, 앞의 책, 247~252쪽; 김영심, 앞의 논문, 98쪽) 그러나 『구당서』의 “官之貴者”는 『수서』·『북사』의 “貴者”와 동일한 신분층 즉, 상위 관인으로 판단되므로 6세기에 소골을 썼던 상위 관인이 7세기에는 청라관을 쓰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두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당서』·『신당서』

비관인과 하위 관인의 차이가 조우 장식의 유무로만 구별되던 6세기의 관모 제도는 비관인의 불만을 가져왔을 것이며, 비관인과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하위 관인의 욕구로 인해 7세기 하위 관인의 관모는 조우 절풍에서 라관(羅冠)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처럼 상하 관인의 관모가 라관으로 통일됨에 따라, 관등 내 상하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라관은 다시 청라관과 비라관으로 분화되었을 것이다. 다만 6세기의 소골 즉, 자라관을 온존시키면서 새로운 색채를 한 가지 첨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하위 관인의 관모 색채를 모두 새롭게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²⁵⁾

2. 소골의 형태 규명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소골과 청라관·비라관은 동일 계열의 관모로 판단되며, 시기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인 형태 특성은 공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골의 형태에 관한 기존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소골을 변형(弁形) 관모로 파악하는 견해이다.²⁶⁾ 이 학설의 최초 주창자인 이어성은 어원(語源) 분석을 통해 ‘소골’이 ‘속곳’ 즉 ‘용립(聳立)한 관모’를 뜻하는 용어임을 밝히고, 소골이 절풍과 유사한 변형 관모일 것으로 추정하였다.²⁷⁾ 소골이 변형 관모일 가능성은 벽화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문헌에서 언급한 소골의 특징-자라, 금은 및 조우 장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관모를 개마총 개마도(鎧馬圖)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관모의 형태가 변형(弁形)이다(<그림 2>).²⁸⁾ 따라서 소골을 변형 관모로



① ②

〈그림 2〉 개마총 소골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Ⅱ, 도판152)

기사에서 조우 절풍을 쓴 하위 관인에 대한 기록이 누락된 셈인데, 庶人·國人の 관모까지 서술하면서 하위 관인의 관모만 누락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 25) 박선희는 비라관을 진홍색 라(羅)로 만든 ‘골소’로 이해함으로써 7세기 관인의 관모제도를 청라관과 소골로 구분되는 제도로 파악하고 있다.(박선희, 「고구려와 주변국의 관모비교에 의한 한민족문화의 연원」, 『단군학연구』 11, 단군학회, 2004, 104~105쪽) 그러나 골소는 자색 라로 제작되고, 비라관은 비색 라로 제작되므로 동일한 관모로 볼 수 없다. 삼국시대에 자색과 비색은 명확히 구분되는 색채였음을 의복색을 자·비·청으로 구분하는 백제의 관복제도나 자·비·청·황으로 구분하는 신라의 관복제도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三國史記』, 권24, 백제본기 제2, 고이왕 27년; 『三國史記』, 권33, 잡지2, 색복 참조)
- 26) 변형 관모는 ‘弁’字 형태와 흡사한 관모로 정상이 뾰족한 삼각상의 관모를 말한다.(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188~190쪽 참조)
- 27) 이어성은 소골이라는 것은 ‘sok-got’의 사음대자(寫音對字)로, 속(Sok)은 솟(Sot)의 변음(變音)으로 용립(聳立)의 뜻을 갖고, 곳(got)은 갓(gat)의 전와(轉訛)로 관모의 뜻을 가지니, ‘속곳’은 ‘용립한 관모’를 의미한다고 하였다.(李如星, 위의 책, 190~191쪽)
- 28) <그림 2-②>의 관모에는 조우 장식 외에 높이 솟아오른 화지형(花枝形) 금속제 장식이 꽃혀 있어 주목된다. 화지형

파악하는 이여성의 견해는 대다수 연구자의 동의를 얻고 있다.²⁹⁾

두 번째는 소골을 책(幘)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용범은 절풍과 소골이 착용신분층과 재료 및 양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삼국지(三國志)』와 『양원제직공도(梁元帝職貢圖)』에 보이는 책과 절풍의 이원적 구분에 의거하여 귀자(貴子)의 관모인 소골은 책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하였다.³⁰⁾ 임기환 역시 유사한 근거로 소골을 책이라 판단하였다.³¹⁾ 그러나 귀천의 관모를 책과 절풍으로 이분하는 제도가 6세기까지 지속되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분법에 근거해 소골을 책으로 비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이용범이 소골로 비정한 관모는 변형 관모이므로 책이라 보기 어렵다.³²⁾ 임기환은 책형(幘形) 관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책으로 추정되는 관모 가운데 자색(紫色)을 띠거나 조우나 금은 장식을 한 경우가 없어서 소골을 책과 연결시키기 어렵다.³³⁾

세 번째는 소골을 무관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아즈마 우시오(東潮)와 이경희는 4~5세기 평양지역 고분벽화의 묘주가 쓴 무관이 소골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³⁴⁾ 아즈마 우시오는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경희의 경우, 소골의 착용자가 상위 관인급이라는 점에서 문헌과 벽화가 일치하고, 소골의 소재가 비단이고 문헌에서 절풍과는 별도로 언급된 점으로 볼 때, 소골이 무관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색이나 조우 장식 같은 소골의 특징을 보여주는 무관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한 건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주서』·『수서』·『북사』에서 한결같이 소골 착용자는 바지와 저고리 차림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고분벽화 속의 무관 착용자는 모두 포(袍)를 입고 있다. 따라서 무관과 소골은 별개의 관모로 판단된다.

결국 소골은 어원상으로나 벽화상으로 볼 때 변형 관모로 판단되므로, 청라관·비라관은 물론이고 백라관까지 모두 변형 계통의 관모로 추정할 수 있다.

장식이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변형, 자색, 금은 및 조우 장식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소골로 비정할 수 있다. <그림 2-②>는 묘주이고 <그림 2-①>은 그 밑의 신하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관모 장식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소골을 착용하는 신분층 내에서도 지위에 따라 관모 장식에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9) 이은창, 김문자, 강순제, 양경애, 박선희 등 많은 연구자들이 소골을 변형 관모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은창, 한국 복식의 역사-고대편-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177~178쪽; 金文子, 『韓國服飾文化의 原流』, 民族文化社, 1994, 34~36, 60~62쪽; 姜淳弟, 「우리 冠帽의 始末에 關한 研究-男子 便服 冠帽를 中心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0~12쪽; 梁慶愛, 앞의 논문, 55~56쪽; 박선희, 앞의 책, 2002, 251~252쪽.)

30) 이용범, 「高句麗人의 鳥羽插冠에 對하여」, 『동국사학』 4, 동국사학회, 1956, 4~5쪽.

31) 임기환은 소골을 자라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청라관, 비라관까지도 소골로 파악하고 있다.(임기환, 앞의 책, 250~252쪽.)

32) 이용범은 개마총 개마도(鎧馬圖) 선두 인물의 관모가 후두부가 심하게 파손되어 세부를 보기 어렵지만 벽화상의 다른 인물들이 쓴 변형 관모와 형태가 확연히 구별되며 관모 주위에 금색 장식이 있어 소골과 대체로 부합된다고 하였다. 다만 이 관모에 공작털 같은 장식은 보이거나 조우 장식은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이용범, 앞의 논문, 5~6쪽.) 이용범이 논문을 쓸 당시에는 벽화를 제대로 판별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현재 전해지는 묘사도로 볼 때 개마도 선두인물의 관모는 책이 아니라 변형 관모이다.

33) 고구려 책의 다양한 형태에 관해서는 이경희, 「고구려 책(幘)에 관하여」, 『한국학연구』 1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134~14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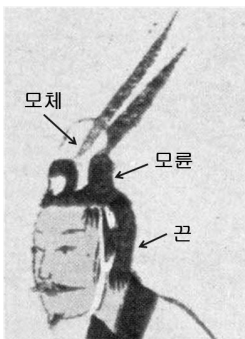
34) 東潮, 앞의 책, 442쪽, <표 41>; 이경희, 앞의 논문, 2009, 286~288쪽.

IV. 고구려 변형 관모의 형태 분류 및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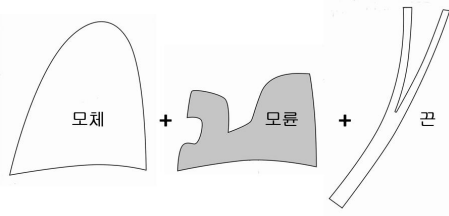
1. 변형 관모의 기본 구조

변형 관모로 추정되는 백라관의 구체적인 형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다양한 변형 관모의 형태를 분석하였다.³⁵⁾ 변형 관모가 확인되는 벽화고분은 대부분 5세기~6세기 전반 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벽화의 제작 연대와 상관없이, 고구려 변형 관모의 기본 구조는 관모 주체부인 ‘모체(帽體)’, 모체 바깥쪽 아랫부분을 둘러싼 ‘모륜(帽輪)’, 관모를 머리에 안착시키는 ‘끈’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3, 4). 조우 혹은 기타 장식이 부가된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착용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로 변형 관모의 기본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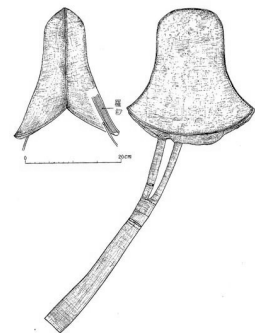
모체는 정수리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변형(弁形)이며, 머리에 완전히 눌러 쓸 정도의 크기는 아니어서 상투를 덮을 정도의 크기이다. 모륜은 앞뒤에 모체 높이의 1/2~2/3 정도에 달하는 융기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륜은 모체의 하반부를 지지해 줌으로써 관모를 머리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되었을 것이며, 전면 융기부는 조우를 꽂기 위한 장치 역할을 하기도 했을 것이다(그림 3)). 끈은 관모 좌우에 달려 있는데, 끈 윗부분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그 틈 사이로 귀를 통과시킨 후 턱 밑에서 묶어 고정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 끈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몽골 노인우라 6호분에서 출토된 변형 관모를 참고할 만하다(그림 5)).



〈그림 3〉 쌍영총 변형 관모
(『韓國美術全集』 4 壁畫, 도판44를 기초로 연구자 수정)



〈그림 4〉 변형 관모의 기본 구조
(연구자 작성)



〈그림 5〉 노인우라 6호분 출토
변형 관모, B.C.1C~A.D.1C
(『蒙古ノイン・ウラ發見の遺物』, 圖30)

35) 분석 대상이 된 벽화고분은 변형 관모를 확인할 수 있는 무용총, 마선구1호분, 삼실총, 장천1호분, 대안리1호분, 쌍영총, 동암리고분, 개마총의 8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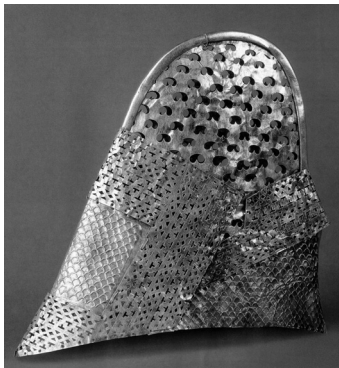
2. 변형 관모의 변화 양상

고구려의 변형 관모는 벽화 제작시기와 무관하게 ‘모체-모륜-끈’으로 구성되는 기본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지만, 색채와 세부 형태에 있어 변화를 보인다(〈표 1〉).

첫째, 색채 측면에서 눈에 띄는 점은 모체와 모륜의 색채 조합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표 1-①~⑧〉에 보이는 바와 같이 벽화상의 변형 관모는 모체와 모륜의 색채 조합에 따라 ‘백색 모체+흑색 모륜’형, ‘홍색 모체+흑색 모륜’형, ‘홍색 모체+자색 모륜’형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백색 모체+흑색 모륜’형은 무용총·삼실총·장전1호분·대안리1호분·쌍영총에서 확인되고, ‘홍색 모체+흑색 모륜’형은 동암리고분·개마총에서 확인되며, ‘홍색 모체+자색 모륜’형은 개마총에서만 확인된다.³⁶⁾ 벽화고분의 축조시기를 고려하면, 5세기 후반까지 ‘백색 모체+흑색 모륜’ 일색이던 변형 관모가 동암리고분 단계인 5세기 말 경에는 ‘홍색 모체+흑색 모륜’으로 변화하며, 개마총 단계인 6세기 전반에는 ‘홍색 모체+흑색 모륜’ 외에 ‘홍색 모체+자색 모륜’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³⁷⁾ 시기, 착용자, 조우 장식 유무(有無)를 고려할 때, ‘백색 모체+흑색 모륜’형과 ‘홍색 모체+흑색 모륜’형은 ‘절풍’ 혹은 ‘조우 절풍’으로 판단되고, ‘홍색 모체+자색 모륜’형은 ‘소골’로 판단된다.³⁸⁾

이와 더불어 끈의 색채에도 변화가 확인되는데, 백색 모체에는 백색 끈이, 홍색 모체에는 홍색 끈이 조합되는 방식, 즉 끈의 색이 모체의 색과 일치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 금관총 출토 금제 관모
(『신라황금』, 도판21)



〈그림 7〉 천마총 출토 금제 관모
(『신라황금』, 도판22)



〈그림 8〉 무용총 변형 관모
(『韓國美術全集』 4 壁畫, 도판55)

36) 동암리고분 벽화에서는 2건의 ‘홍색 모체+흑색 모륜’형이 확인된다. 2건 모두 전면 용기부의 상자형 구멍 사이로 비치는 붉은색은 선명한 반면 모체의 색은 붉은 기운을 아주 약하게 띠고 있거나 모체가 남아 있지 않았지만, 이는 박락에 의한 색상의 약화나 소멸로 파악하였다.

37) 고구려 벽화고분의 편년안은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변형 관모를 비롯한 복식 상의 특징으로 보아 동암리 벽화고분의 축조 시기는 5세기 말경으로, 개마총의 축조 시기는 6세기 전반으로 보고자 한다.(고구려 벽화고분의 다양한 편년안에 대해서는 정호섭,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2011, 160~167쪽 〈표 7〉 참조)

38)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 貴賤有差”; 『北史』, 卷94 列傳82 高麗, “人皆頭著折風 形如弁 士人加插二鳥羽 貴者 其冠曰蘇骨 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 참조.

둘째, 형태 측면에서는 모체와 끈은 일관된 형태를 유지한 반면, 모륜 부위는 높이와 넓이에 있어 6세기를 기점으로 변화가 확인된다. 먼저 5세기의 변형 관모-‘백색 모체+흑색 모륜’형과 동암리고분의 ‘홍색 모체+흑색 모륜’형-의 모륜 구조를 살펴보자(〈표 1-①~④〉). 이들 관모에서 모륜은 모체의 아랫부분을 둘러싸고 있는데, 두께가 일정치 않아서 전·후면에 모체 높이의 1/2 정도에 달하는 융기부(隆起部)를 형성하고 있다. 흑색 전면 융기부의 중앙 부분은 백색이나 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융기부의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흑색 모륜 사이로 백색이나 홍색 모체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의 금관총과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제(金製) 변형 관모를 참고할 만하다(〈그림 6, 7〉). 이들 관모의 전면(前面) 하단부에 사용된 금판은 고구려 변형 관모의 전면 융기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형상이다(〈그림 8〉). 금판 중심부에 사각형 구멍이 뚫린 구조는 고구려 변형 관모의 전면 융기부 중심에 구멍이 뚫려 있었음을 시사한다. 신라 금속제 관모의 기원이 고구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³⁹⁾ 양자 간의 관련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한편, 모륜의 후면 융기부는 전면 융기부와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전면 융기부와 높이는 비슷하나 점유 면적은 더 넓어서,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에 이르는 너른 면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8〉). 후면 융기부는 뒤쪽 중심부가 모체 밖으로 약간 돌출된 것이 특징인데 이 또한 신라 관모와 유사점을 보인다. 금관총 출토 금제 관모의 후면에 사용된 금판을 보면 상단부에 비해 불룩하게 튀어나오도록 제작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고구려 변형 관모의 후두융기부와 흡사하다(〈그림 6〉). 천마총 출토 금제 관모 후두부의 불룩 튀어나온 장식도 고구려 변형 관모의 후두융기부를 흉내 낸 흔적으로 추정된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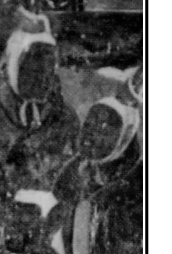
다음으로 6세기의 변형 관모 즉, 개마총 벽화에 표현된 변형 관모의 모륜 구조를 살펴보자. ‘홍색 모체+흑색 모륜’형의 경우, 〈표 1-⑤〉와 〈표 1-⑥〉의 모륜 구조에 차이가 있는데, 후자는 박락이 심한 벽화의 묘사과정에서 부정확하게 묘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자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1-⑤〉를 보면 모륜의 전면 융기부 중심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사이로 붉은색 모체가 보이고 있어서, 5세기 변형 관모의 전면 융기부와 동일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세기의 변형 관모는 모륜의 높이가 모체 높이의 1/2을 넘지 않고 모륜의 전후 융기부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비해, 6세기의 변형 관모는 모륜의 높이가 훨씬 높아지고 모륜의 전후 융기부 사이에 간격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전 시기 변형 관모에 비해 관모 전체에서 모륜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홍색 모체+자색 모륜’형의 모륜 구조도 ‘홍색 모체+흑색 모륜’형과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다만 〈표 1-⑦〉을 보면 모륜의 전후 융기부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전후융기부가 연결한 모습을 부정확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홍색 모체+흑색 모륜’형과는 달리 전후 융기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제작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어쨌거나 모륜의 높이가 앞부분은 모체의 1/2 혹은 그 이상에 달하고 뒷부분은 모체를 거의 가릴 정도여서, 관모의 대부분을 모륜이 차지하는 형국이다. 또한 모륜에는 여러 가지 장식까지 부가되어

39) 이한상, 「고구려의 장신구」, 고려대학교박물관,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통천문화사, 2005, 192쪽.

있어 관모 전체에서 모륜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전면 용기부의 창문형 구멍 유무는 확실치 않은데, <표 1-⑦>을 보면 창문형 구멍에 해당하는 위치에 붉은 선이 표현되어 있고 <표 1-⑧>에는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홍색 모체+자색 모륜’형의 경우에도 전면 용기부 중앙에 구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보아, 5~6세기 고구려의 변형 관모는 ‘백색 모체+흑색 모륜’ 일색에서 ‘홍색 모체+흑색 모륜’, ‘홍색 모체+자색 모륜’과 같은 다양한 색채 조합을 갖게 되었으며, 모륜의 높이가 높아지고 전후 용기부 간의 간격이 좁아져서 관모에서 모륜이 차지하는 시각적 비중이 점차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고구려 변형 관모의 종류와 변천

5세기(I형)		6세기(II형)		7세기(III형)	
백색모체+흑색모륜 (절풍/조우절풍)	홍색모체+흑색모륜 (절풍/조우절풍)	홍색모체+흑색모륜 (절풍/조우절풍)	홍색모체+자색모륜 (소골)	홍색모륜 (비라관)	청색모륜 (청라관)
					
① 무용총	③ 동암리고분	⑤ 개마총	⑦ 개마총		
					
② 쌍영총	④ 동암리고분	⑥ 개마총	⑧ 개마총	⑨ 이현묘 벽화	⑩ 돈황 335굴 벽화

* <표 1>에 사용된 그림의 출처는 참고문헌 뒤에 수록하였다.

V. 7세기 라관(羅冠)의 형태 비정

고구려 고분벽화에 표현된 변형 관모의 변화 양상을 고찰한 결과, 소골은 5세기의 변형 관모와는 달리 ‘홍색 모체-자색 모륜-홍색 끈’으로 구성되며, 모륜부가 높고 넓어서 관모 전체에서 모체보다 모륜이 차지하는 시각적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문헌에서 소골의 소재를 설명하면서 모체가 아닌 모륜의 소재로 사용된 ‘자라(紫羅)’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소골의 뒤를 이은 7세기 라관의 형태는 어떠했을까? 앞서 검토를 통해 백라관, 청라관, 비라관은 소골과 유사한 디자인 특성을 갖는 변형 관모일 것으로 추정했으므로, 이들 라관 역시 높고 넓은 모륜을 갖춘 변형 관모이며 백라, 청라, 비라는 모두 모륜의 소재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당(唐) 이현묘(李賢墓) 벽화와 돈황 335굴 벽화에 보이는 고구려 사신이 주목된다(〈표 1-⑨, ⑩〉). 그런데 이들의 관모를 논의하기에 앞서 여기에 보이는 사신을 고구려인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현묘 벽화의 경우, 조우관(鳥羽冠)을 쓴 한국인 사신의 국적에 관해 논란이 분분해서 신라인설·발해인설·고구려인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⁴⁰⁾ 그러나 노태돈에 따르면 발해인설은 벽화 제작 시기(706년)가 발해 건국 직후로서, 발해와 당 간에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맺어졌는지도 의심스러운 시기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고, 신라인설의 경우 ‘왕회도(王會圖)’와 ‘번객입조도(蕃客入朝圖)’로 미루어 보건대 법흥왕 7년(520)의 관복제도 제정 이후에는 조우관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⁴¹⁾ ‘왕회도’와 ‘번객입조도’는 삼국 사신이 함께 등장하는 자료로서 삼국 복식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들 자료에서 고구려인만이 조우관을 쓴 모습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왕회도’와 ‘번객입조도’의 모본(模本)이 되었던 ‘양직공도(梁職貢圖)’의 제작시기 즉, 6세기 전반 경에 조우관을 사신의 관모로 채용한 국가는 삼국 중 고구려가 유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현묘 벽화의 한국인 사절이 발해인이나 신라인일 가능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고구려인일 가능성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706년에 제작된 이현묘 벽화에 668년 멸망한 고구려의 사신이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 노태돈은 고구려가 멸망 이후에도 여전히 당나라인 사이에서 당적(唐的) 천하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여겨졌던 점을 논증함으로써, 고구려인설의 가장 큰 취약점인 벽화의 제작 연대 문제를 극복하고 이현묘 벽화의 조우관 착용자가 고구려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⁴²⁾ 이처럼 520년 이후 자료에서 신라 사신이 조우관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사라지고, 벽화 제작시기가 고구려 멸망 이후라는 점이 문제되지 않게 됨에 따라 686년으로 편년되는 돈황 335굴 벽화에 보이는 조우관 착용자도 고구려인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에 보이는 조우관을 고

40) 이현묘 벽화의 조우관 쓴 인물의 국적에 관한 연구사는 노태돈,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3쪽에 정리되어 있다.

41) 노태돈, 앞의 책, 2쪽, 17~32쪽.

42) 노태돈, 앞의 책, 33~54쪽.

구려의 관모로 인정하면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⁴³⁾

〈표 1-⑨, ⑩〉을 살펴보면 이현묘 벽화와 돈황 335굴 벽화에 보이는 고구려 사신은 상투를 겨우 가릴만한 작은 관모를 두 갈래로 나뉜 끈을 사용해 턱 아래에서 고정시키고 있다. 또한 모체(帽體)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관모 양측 상단에 조우가 장식되어 있다. 전체적인 느낌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변형(弁形)에 가깝지만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절풍이나 소골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절풍과 소골의 형태 변화를 고려하면, 이들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사신의 관모가 고구려 변형 관모의 기본 구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변형 관모는 모륜이 점차 높아지고 전후용기부 간의 간격이 점차 좁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모륜의 형태를 기준으로 5세기 형식을 ‘Ⅰ형’, 6세기 형식을 ‘Ⅱ형’으로 본다면, 고구려 사신의 관모는 Ⅱ형에서 좀 더 진전된 ‘Ⅲ형’으로 볼 수 있다(〈표 1〉). 즉, 고구려 사신의 관모는 Ⅱ형보다 모륜이 더 높아져서 모륜이 관모의 중심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전면 용기부의 창문형 구멍은 사라졌으며, 모체는 작아져서 모륜 속에 가리는 형태가 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사신의 관모에서 눈에 띄는 점은 모륜부의 색채이다. 〈표 1-⑨, ⑩〉을 보면 이현묘 벽화의 고구려 관모는 모륜의 앞쪽, 즉 전면 용기부가 붉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돈황 335굴 벽화에 보이는 고구려 관모는 모륜 전체가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소골이 모륜부에 자색 라를 사용하여 ‘자라(紫羅)로 만든 관’으로 기록된 점을 고려하면, 비라관과 청라관 또한 모륜부에 비색과 청색의 라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이현묘 벽화의 고구려 관모는 비라관으로, 돈황 335굴 벽화의 고구려 관모는 청라관으로 비정할 수 있다.⁴⁴⁾ 다만, 이현묘 벽화에 나타난 비라관은 전후 용기부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면 용기부에만 비라가 사용된데 반해, 돈황 335굴에 표현된 청라관은 전후 용기부가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며 모륜부 전체에 청라가 사용된 차이가 있다. 어느 쪽이 7세기의 라관 제도에 더 부합되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현묘 벽화가 돈황 335굴 벽화에 비해 복식 표현이 세밀한 것으로 볼 때 7세기의 라관은 이현묘 벽화에 보이는 라관처럼 전후 용기부가 구별되고 모륜의 앞부분에만 특정색의 ‘라’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으로 보아 청라관과 비라관은 이전 시기의 소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모륜은 좀 더 높아지고 모체는 작아져서 모륜이 관모의 중심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모륜부에 청색이나 비색의 ‘라’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라관의 경우에도 청라관·비라관과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판

43) 이 밖에 돈황 220굴 벽화와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를 통해서도 7세기 고구려의 관모를 확인할 수 있지만, 벽화의 박락이 심하여 조우 장식 이외에 관모의 구체적인 형태와 색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에 표현된 고구려 사신의 관모는 현재 남아 있는 벽화와 모사도 상으로는 상투를 둥글게 감싼 복두(幘頭) 형태처럼 보이지만, 둥근 깃으로 보이는 저고리의 경우에도 발굴 당시의 모사도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곧은 깃으로 판단된다는 연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김용문, 「아프라시아 벽화에 나타난 복식 연구」, 『복식』 60:7, 한국복식학회, 2010, 122쪽 참조) 박락된 벽화를 근거로 이들의 관모를 복두 형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4) 양경애 또한 이현묘 벽화 고구려 사신의 관모를 비라관으로 추정하였는데, 관모 장식(관모 전면의 붉은색 장식물과 깃털 장식)과 기타 복식의 특성(넓은 소매의 저고리, 넓은 바지, 흰색 허리띠, 황색 가죽신)이 『구당서』와 『신당서』 기록에 부합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양경애, 앞의 논문, 1997, 76쪽 참조)

단되므로, 백라(白羅)로 제작된 높고 넓은 모륜, 모륜 속에 거의 가려진 낮은 모체, 귀를 통과시킬 수 있는 끈으로 구성된 작은 변형 관모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백라관은 청라관·비라관과 형태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색채와 장식을 통해 신분상의 차이를 드러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백라관이 백라를 사용하고 금으로만 장식을 했다면, 청라관과 비라관은 청라·비라를 사용하고 금과 은을 섞어서 장식함으로써 서로 구별되었을 것이다. 한편, 조우 장식에 관해서는 『구당서』·『신당서』에서 청라관·비라관의 경우에만 언급하고 있지만, 고구려는 일찍부터 조우 장식의 유무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왕의 관모인 백라관에도 조우와 관련된 관모 장식이 부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조우 장식의 형태와 소재에 있어 청라관·비라관과 차등을 두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Ⅵ. 맺음말

고구려왕의 관모인 백라관은 그 형태에 있어 안악3호분 피장자 논쟁과 맞물려 학계의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기록과 고구려 고분벽화 및 중국 벽화의 검토를 통해 고구려 백라관의 형태 규명을 시도하였다.

먼저 백라관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당서』·『신당서』 기사를 검토한 결과, 백라관은 청라관·비라관과 색채와 장식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형태상으로는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북사』 기사를 참조할 때, 7세기의 청라관·비라관은 6세기의 소골과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백라관의 형태 ≍ 청라관·비라관의 형태 ≍ 소골의 형태’라는 관계가 설정되었다. 그런데 소골은 어원상으로는 벽화상으로 볼 때 변형(弁形) 관모로 판단되므로, 청라관·비라관은 물론이고 백라관까지 모두 변형 관모 계통으로 추정되었다.

변형 관모로 추정된 백라관의 구체적인 형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고분벽화에 표현된 고구려의 다양한 변형 관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구려 변형 관모의 기본 구조는 관모 주체부인 ‘모체(帽體)’, 모체 바깥쪽 아랫부분을 둘러싼 부분인 ‘모륜(帽輪)’, 관모를 머리에 안착시키는 장치인 ‘끈’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벽화 제작 시기와 무관하게 ‘모체-모륜-끈’으로 구성되는 기본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지만, ‘백색 모체+흑색 모륜’ 일색에서 ‘홍색 모체+흑색 모륜’, ‘홍색 모체+자색 모륜’과 같은 다양한 색채 조합을 갖게 되었으며, 모륜의 높이가 높아지고 전후 융기부 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통해, 6세기의 소골은 5세기의 변형 관모와는 달리 ‘홍색 모체-자색 모륜-홍색 끈’으로 구성되며, 모륜부가 높고 넓어서 관모 전체에서 모륜이 차지하는 시각적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이유로 문헌에서 소골의 소재를 설명하면서 모체가 아니라 모륜의 소재인 ‘자라(紫羅)’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골과 유사한 형태로 추정된 백라관·청라관·비라관 역시 높고 넓은 모륜을 갖춘 변형 관모이며 백라·청라·비라를 모륜의 소재라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현묘 벽화와 돈황 335굴 벽화에 보이는 고구려 사신의 관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라관과 비라관은 이전 시기의 소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모륜이 더 높아지고 모체는 작아져서 모륜이 관모의 중심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현묘 벽화의 관모는 모륜부 전면에 붉은색 라를 사용한 비라관이고, 돈황 335굴의 관모는 모륜부에 푸른색 라를 사용한 청라관으로 추정되었다.

백라관의 경우에도 청라관·비라관과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백라(白羅)로 제작된 높고 넓은 모륜, 모륜 속에 거의 가려진 낮은 모체, 귀를 통과시킬 수 있는 끈으로 구성된 작은 변형 관모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백라관이 백라를 사용하고 금으로만 장식을 했다면, 청라관과 비라관은 청라·비라를 사용하고 금과 은을 섞어서 장식함으로써 서로 구별되었을 것이며, 백라관은 조우 장식의 형태와 소재에 있어 청라관·비라관과 차등을 두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료의 한계상 논리의 비약이 많았으며, 백라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백라관의 정확한 형태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백라관이 역사적 사실에 보다 가깝게 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에 연구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舊唐書』

『北史』

『隋書』

『新唐書』

『魏書』

『周書』

姜淳弟, 「우리 冠帽의 始末에 關한 研究-男子 便服 冠帽를 中心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孔錫龜, 「安岳3號墳 主人公의 冠帽에 대하여」, 『高句麗研究』 5, 고구려연구회, 1998, 157~193쪽.

孔錫龜, 「안악 3호분의 주인공과 고구려」, 『白山學報』 78, 백산학회, 2007, 61~88쪽.

국립경주박물관(편), 『신라황금』, 2001, 씨티파트너.

金文子, 『韓國服飾文化의 原流』, 民族文化社, 1994.

김영심, 「6~7세기 삼국의 관료제 운영과 신분제」, 『한국고대사연구』 54, 한국고대사학회, 2009, 85~

137쪽.

김용문, 「아프라시압 벽화에 나타난 복식 연구」, 『복식』 60:7, 한국복식학회, 2010, 117~130쪽.

金元龍 主編, 『韓國美術全集』 4 壁畫, 同和出版公社, 1974.

노태돈,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梁慶愛, 「三國時代 支配階層 服飾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박선희, 『한국 고대 복식-그 원형과 정체-』, 지식산업사, 2002.

박선희, 「고구려와 주변국의 관모비교에 의한 한민족문화의 연원」, 『단군학연구』 11, 단군학회, 2004, 93~147쪽.

박진욱, 「안악3호무덤의 주인공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0-2,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90, 2~6쪽.

손영중, 「고구려벽화무덤의 목서명과 피장자」, 『高句麗研究』 4, 고구려연구회, 1997, 289~299쪽.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편), 『고구려사 연구Ⅱ』 史料篇,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이경희, 「고구려 책(幘)에 관하여」, 『한국학연구』 1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123~156쪽.

이경희, 「평양지역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묘주복식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56, 한국고대사학회, 2009, 253~299쪽.

이경희 · 서영대 · 조우현, 「고구려와 중국의 武冠 비교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1, 한국의상디자인학회, 2007, 51~69쪽.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이용범, 「高句麗人의 鳥羽插冠에 對하여」, 『동국사학』 4, 동국사학회, 1956, 1~30쪽.

이은창, 『한국 복식의 역사-고대편-』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이한상, 「고구려의 장신구」, 고려대학교박물관,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통천문화사, 2005, 189~202쪽.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전주농, 「안악 <하무덤(3호분)>에 대하여-그 발견 1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유산』 1959-5,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9, 14~35쪽.

정완진, 「袁台子墓 벽화 주인공 복식에 관한 연구-고구려 복식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복식』 51:5, 한국복식학회, 2001, 95~111쪽.

정호섭,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2011.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편),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 II,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朱榮憲, 「주요 고구려벽화무덤의 주인공문제에 대하여」, 『高句麗古墳壁畫』, 東京: 朝鮮畫報社, 1986, 권말1~18쪽.

천석근, 「안악제3호무덤벽화의 복식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86-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6, 22~27쪽.

周汛·高春明,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6.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5, 敦煌壁畫 下, 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88.

東潮, 『高句麗考古學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97.

梅原末治, 『蒙古ノイン・ウラ發見の遺物』, 東京: 東洋文庫, 1960.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 第4卷 隋·唐, 東京: 小學館, 1997.

〈표 1〉 그림 출처

- ①, ②: 『韓國美術全集』 4 壁畫, 도판55, 도판44
- ③, ④: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도판316
- ⑤, ⑥, ⑦, ⑧: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I, 도판152
- ⑨: 『世界美術大全集』 東洋編 第4卷 隋·唐, 도판5
- ⑩: 『中國美術全集』 繪畫編 15 敦煌壁畫 下, 도판40

* 이 논문은 2011년 12월 30일에 투고되어,
2012년 1월 26일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2년 2월 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2년 2월 13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Assumptions on the Form of the Baengnagwan from the Kingdom of Goguryeo

Jung, Wanjin*

I have attempted to identify the forms of the Baengnagwan (a white silk hat worn by the kings of Goguryeo) from the Kingdom of Goguryeo by researching the historical literature and mural paintings of both Goguryeo and China. By analyzing these historical records, I can infer that the Baengnagwan did not take after the Muguan (a type of military hat) used in China but was a conical hat, which was apparently similar to the Cheongnagwan (a blue silk hat), the Biragwan (a red silk hat) and the Sogol (a purple silk hat). By analyzing the mural paintings of the Kingdom of Goguryeo, I have identified that the Sogol was a conical hat with a high and wide moryun (a bottom part surrounding the central part of the hat, moche) and the moryun was made from jara (purple silk). By analyzing the hats worn by the Goguryeo envoys showing on the mural paintings of China, I can assume that both the Cheongnagwan and Biragwan were equipped with a blue moryun and a red moryun respectively, and had a higher moryun but smaller moche than the Sogol.

Lastly, I have inferred the form of Baengnagwan through that of the Cheongnagwan and the Biragwan; the Baengnagwan was assumed to be a small conical hat, with a high and wide white silk moryun, a low moche hidden in the moryun, and strings tied under the chin. However, the Baengnagwan was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two hats in that the former was made from white silk and decorated with gold while the latter two were made from blue and red silk and decorated with gold and silver. In addition, the form and materials of bird feather ornaments also made the Baengnagwan differ from the other two.

Though there remain limitations because of the limited historical evidence,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lays the foundation for re-enacting the Baengnagwan based on historical facts.

[Key Words] Baengnagwan (a white silk hat worn by the kings of Goguryeo), Muguan (a type of military hat), Cheongnagwan (a blue silk hat), Biragwan (a red silk hat). Sogol (a purple silk hat).

* Visiting scholar,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